| 현불 논단 |

# 꽃은 져도 향기는 남는다



정운 스님
동국대 강사

**꽃 · 나무에 존칭 썼던 故법정 스님**
**조선代 자비 스님, 만물에 '님'붙여**
**소동파는 '무정설법'에 오도송 읊어**

**'무정설법', 물아일체 경지 의미해**
**모든 산천초목도 우리에게 法 설파**

**울긋불긋 단풍, 가을 화장세계 장엄**
**무정중생들이 좋은 진리를 설해주니**
**어찌 모든 수목에 감사하지 않겠는가**

故법정 스님이 입적하기 며칠 전 병상에 있을 때이다. 미황사 前 주지를 지낸 금강 스님이 동백꽃과 매화를 꺾어서 병실에 보냈다. 스님께서 그 꽃을 받고, 한 송이 한 송이를 어루만지며 말했다.

**"꽃들아, 올라오느라고 수고 많았다. 내가 보러 가야 하는데…."**

법정 스님은 어느 글에서도 "청도 운문사에 '세월의 자취를 간직한 세 분이 계시다'"라고 운을 띄운 뒤, 비로자나불 · 은행나무 · 처진 소나무라고 언급했다. 또 법정 스님이 불일암에 머물 당시, 봄날에 출타를 하면서 도량에 피어있는 매화에게 "혼자 있게 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건네고 떠났다.

이렇게 법정 스님은 꽃과 나무에게도 사람을 대하듯 존칭을 썼다. 조선 시대, 자비(慈悲) 스님도 그러했다. 스님은 성정이 곧아 재상이나 벼슬아치를 만나도 굽실대지 않았고, 어떤 물건이든지 누군가가 주면, 받아서는 그것을 남이 달라고 하면 모두 주었다. 어떤 물건을 일컬을 때도 '돌님' · '나무님' · '사자님' · '토끼님' 등으로 반드시 '님' 자를 붙였다.

송나라 때, 소동파(1037~1101)는 황룡파 동림 상총(東林常總, 1025~1091)의 법맥을 받은 사람이다. 소동파가 처음 상총 스님을 만났을 때의 일이다.

**"스님, 제가 일대사인연(一大事因緣)을 해결하고자 찾아왔습니다. 스님께서 이 미혹한 중생을 제도해 주십시오."**

**"거사님은 이제까지 어느 스님을 만나셨습니까?"**

**"저는 여러 고을을 전전하며 스님들을 많이 만났지만, 아직도 공부가 되지 못했습니다."**

**한참 뜸을 들이던 상총이 말했다. "거사님은 어찌 무정설법은 들으려 하지 않고, 유정설법만 청하십니까?"**

소동파는 상총 스님의 '왜 무정설법은 들으려 하지 않느냐?'는 말씀에 의문을 품고 집으로 가는 길녘에 마침 폭포 앞을 지나갔다. 이때 폭포수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깨달은 뒤에 "시냇물 소리가 곧 부처님 설법이요, 산의 풍광 그대로가 부처님 법신이로다"라고 오도송을 읊었다. 동파는 선사의 말(화두)과 씨름하던 중 정각의 시절인연이 도래한 것이다.

불교에서는 꽃 · 풀 · 나무 등을 '무정(無情)중생'이라고 하고, 지각력을 가진 생명을 '유정(有情, 동물 · 사람)중생'이라고 한다.

〈열반경〉에서는 "초목국토인 무정물도 다 성불한다(草木國土 悉皆成佛)"고 하였고, 〈아미타경〉에서는 "물새와 수목(樹木)이 설법을 해준다"고 하였다. '무정이 법을 설한다(無情說法)'는 것은 실제로 무정이 설법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자가 그 물체와 동화된 마음자리, 물아일체(物我一切) · 심경일여(心鏡一如)의 측면을 말한다. 부처님만이 위대한 진리를 설하는 것이 아니라 초목들도 사람들에게 법을 설해준다는 뜻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무정물이든 부처님만큼 존귀하지 않은 존재는 없다. 이런 만물의 존귀함에 마음을 열고 귀 기울일 때, 그들로부터 진리를 배운다.

만물이 결실을 맺는 계절이 왔다. 수많은 초목이 여름의 무더위 · 폭풍 · 바람 등 고통을 감내한 뒤에 가을을 맞이했다. 꽃은 져도 향기를 남기는 법, 붉은 단풍과 노란 은행나무, 군자라 불리는 국화 등이 가을의 낭만을 뽐내며 화장세계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무정중생이 우리들에게 좋은 진리를 설해주고 있건만 어찌 수목에 감사하지 않으랴.

마음 기울여 무정중생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바라보라. 바로 부처님 회상이 그곳에 있을 것이다.

社 說

# MZ세대 포교 위한 콘텐츠 개발을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가상현실 · 증강현실 등 4차산업 기술들이 장족의 발전을 이루고 있다. 최근 들어 가장 각광을 받는 것이 '메타버스(Metaverse)'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한국형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에 가상박물관 '힐링 동산'을 개관했다. 자신의 아바타로 접속해 퀘스트를 해결하고 국보 금동미륵반가사유상을 찾아가는 이 콘텐츠는 공개 4일 만에 95만 명이 방문했으며, 이중 93%가 해외방문자였다. 해외에서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졸업식이 어려진 UC 버클리 학생들이 비디오 게임 '마인크래프트'를 활용해 직접 메타버스 캠퍼스를 세워 졸업식을 진행해 화제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불교계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한 포교 콘텐츠와 명상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포교에서 한발 뒤쳐졌던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어서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됐던 서산 보원사의 '보원사지 복원 대회 · 공모전'을 눈길을 끈다. 이 역시 '마인 크래프트'를 활용해서 이뤄진 것으로, 청소년들은 무한히 펼쳐진 가상 세계에서 자신의 상상력을 마음껏 펼치며 보원사지를 복원했다. 불교 역사와 사찰 구조 등을 배울 수 있던 것도 물론이다.

역사적으로 불교는 항상 시대를 선도해왔다. 구법승들이 가져온 많은 경전과 논서들은 당시 동아시아 문화와 지성사를 이끌었다. 작금의 불교도 이 같은 선학들의 의지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

메타버스 등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기술들이다. 이를 배우고 활용해 불법을 전하는 것은 불교가 시대를 선도하는 일이다. 당장은 거창할 필요는 없다. 기존 플랫폼을 충분히 활용하며 MZ세대를 위한 콘텐츠를 개발하면 된다. 시대를 읽는 눈이 불교에 필요하다.

# 미등록법인 도제, 대승적 포용해야

조계종이 '법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이하 법인법)' 등에 근거해, 미등록 법인과 미등록 사찰의 도제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등록 여부를 결정하거나 관리의 책임을 가지는 관리자 혹은 권리자가 아님에도, 단지 도제라는 이유로 교육과 수행, 활동에 대한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는 점 때문이다.

조계종이 이같은 문제에 대한 여론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공청회에서는 도제 권리제한이 일종의 연좌제와 같으며, 자기책임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자신의 선택과 행위를 넘어선 피해는 이들에게 상실감과 상처만 주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애초 도제들에 대한 권리 제한을 법에 담았던 취지와도 완전히 다른 결과로 이어진다. 때문에 실익이 없다면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애초 조계종이 도제 권리제한을 시행한 의도는 이를 통해 종단 등록 비율을 높이고자 했기 때문이다. 법인과 사찰 건립의 기반이 되는 삼보정재가 유실되지 않도록 한 최소한의 조치가 종단 등록이다. 때문에 종단 등록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한 노력으로, 도제들에 대한 권리제한을 시행한 셈이다.

그러나 종단 등록이 확대되기 보다는 되레 도제들에게 상처만 주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등록 여부를 떠나 모두가 조계종으로 출가한 스님들이다. 출가자수가 날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스님들 한명 한명은 불교, 그리고 종단의 소중한 인적자산이다. 활동할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포용해야 한다. 그래야 도제들까지 종단에게서 등을 돌리는 안타까운 사태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담마끼띠 스님의
**다문화법당서 보낸 편지**

# 종교 · 국적 넘어선 교류

마하위하라 사찰은 많은 분들의 봉사와 후원으로 이루어져 있는 초기불교 수행 도량으로 잘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이처럼 많은 분들의 참여와 도움으로 사단법인 단체임을 인정받아 1월 10일 자 '마하위하라 사원'이 '사단법인 마하위하라'가 되었습니다. 이는 함께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의 수고와 노력에 힘입어 전통 '초기불교'에 뿌리를 둔 마하위하라 사원이 한국에서 사단법인으로 발돋움하게 된 것입니다.

월주산사 주지 공운 큰스님을 비롯한 많은 한국 스님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지금의 마하위하라가 있습니다. 이 점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스리랑카에서 생산되는 홍차를 지인들에게 팔아 마하위하라 건립에 기금을 지원해 주신 울산 이정수 보살님은 물론이고, 그 외에도 감사 인사를 해야 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소한 듯하지만 큰 저력을 지닌 우리의 힘들이 모여 오늘날의 마하위하라 사원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에게 후원해 주신 분은 1만 5천 명 정도이며, 그중에 3000명이 한국분입니다.

스리랑카 사찰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진 한국분들이 다양한 인연으로 이처럼 모였습니다. 제가 법문 강의를 다니면서 이루어진 인연 혹은 오직 스리랑카가 좋아서 만나게 된 인연, 혹은 이주민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모이게 된 인연, 그리고 초기불교를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로 모이게 된 인연 등 다종다양한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교방송 포교사업단에서 주최한 스리랑카, 인도 성지순례를 참여하면서 담당자 분의 도움을 받아 더욱 많은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이처럼 인연을 맺고자 하는 마음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마하위하라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마하위하라를 사단법인으로 만들기까지 많은 노력을 해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바로 법인을 대표하는 이사님들을 비롯한 회원분들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와중에도 함께해 주신데 대해 지면을 빌어 감사를 전합니다.

마하위하라를 나날이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자 애쓴 분들도 많습니다. 개인적인 시간을 내어 사찰 정원에 아름다운 꽃을 심고 풀을 베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하위하라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분리수거에 솔선수범을 보이는 불자님도 스리랑카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6년간 매주 한 번씩 서울에서 내려와 한 주간 사찰에서 배출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시는 그분의 선행에 많은 분들이 감동합니다.

현재 마하위하라 사원에 100명 정도의 한국 불자님들께서 자동이체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이웃 종교인들도 있습니다.

최초 설립 이념은 스리랑카인들의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한 심리적 지원을 하는 등 힘이 되는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많은 한국분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하위하라는 초기 불교를 배우고 스리랑카 문화도 경험할 수 있는 문화와 학문적 교류의 장(場)이 되었습니다. 부단히 부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며 실천 수행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

〈충남 아산 마하위하라사원 주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5~6 FAX (02)737-0698 |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 당뇨, 고혈압에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디스크,협착증 및각종질병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 민중의술의 특징 |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 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제 105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 | |
|---|---|
| 기본중급과정 (6개월) |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
| |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칭, 관음시식, 구병시식, 다비식 등 |
| 신행과정(1년) |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
| 특수작법(1년) |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

◈ 모집인원 : 30명(선착순)
◈ 강의일시 :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5시 ~ 6시 30분(90분) 담임교수 원장직강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번길 45(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02)741-0495~6